

학교생활

학기가 시작되면 선택 과목 변경은 불가능한가요?

아이가 고2입니다. 작년에 선택 과목을 결정할 때도 고민이 많았는데,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잘못 선택한 것 같다는 말을 계속합니다. 지금이라도 과목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싶다는데 불가능한가요? 작년에 선택 과목을 조사할 때 2월까지만 변경 가능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, 혹시나 해서 문의합니다. 그리고 학교마다 변경 가능한 날짜는 다른가요?

장혜영(45·서울 서초구 서초동)

A

학교가 변경 가능하다고 공지한 날 이후엔 원칙적으로 변경이 어렵습니다.

서울 용문고 최낙원 교감은 “교육부에서 변경 가능 시점을 명시한 건 아니다. 다만, 교육부에서는 어느 시점 이후 선택 과목 변경이 불가능한지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알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. 선택 과목을 결정하고 변경할 시간을 줬는데도 새 학기 시작 후 변경을 요청하면 수용하기 어렵다. 반 편성이나 교사 수급, 학생 이동에 따른 수업 운영, 연쇄적인 변경 요청 등으로 학교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”이라고 전합니다.

새 학기가 시작되도 선택 과목 변경을 허용하는 고교도 있습니다. 제주 대정고 정유훈 교사는 “대정고는 한 학년이 80명 이내인 작은 학교라 해당 과목의 이수 시간을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변경을 허용한다. 보통 1단위가 학기당 17회 인데, 코로나19로 인해 수업 시수가 줄었지만 18주 정도는 수업 시수가 확보됐기 때문에 5월 초까지는 변경이 가능했다. 이 경우라도 같은 시간에 편성된 과목이어야 하고, 같은 평가 방식을 활용하는 과목이어야 하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른다. 규모가 큰 학교는 여러 문제가 맞물리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”고 설명합니다. @

MORE TIP

석차등급과 성취도 표기를 하는 일반선택 과목 중 13명 이하가 선택한 과목은 소인수 과목으로 성취도 표기만 하는데, 학생의 과목 변경으로 평가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최 교감은 “학교 행정상 과목 변경이 가능한 시점이더라도 해당 학생의 이동으로 수강자가 13명이었던 과목이 14명이 된다면 또는 그 반대 상황이 되어 피해를 입는 학생이 생길 수도 있다. 이는 옳지 않다. 또한 과목 선택까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”고 조언합니다.

취재 민경순 리포터 hellela@naeil.com



입시

학과와 학부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.

대학의 학과 명칭을 보면 어떤 과는 전공 뒤에 '학과'가 붙고 어떤 과는 전공 뒤에 '학부'가 붙습니다. 그 차이가 뭔지,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알고 싶습니다.

심혜진(50·서울 성북구 돈암동)

A 학부는 유사한 계열을 합친 것으로,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힙니다.

대학에서 학과의 사전적 의미는 '종합대학 내 개별 대학 안에서 분야를 달리하는 교수진과 학생들의 그룹'입니다. 이에 비해 학부는 유사 계열의 학과를 합친 것으로, 현재 학과와 학부는 운영상의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건국대 방유리나 입학사정관은 "건국대의 경우, 올해 2020학년부터 기계공학부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부가 합쳐져 기계항공공학부가 됐다. 유사 계열을 합치면 학과 단위 모집에 비해 모집 인원이 많아지고, 계열이 확대돼 학생들은 그 안에서 더 다양하게 배울 수 있다.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"이라고 학부의 장점을 설명합니다.

서울대 교무과 관계자도 "시대의 필요에 따라 1995년부터 여러 학과를 합쳐 학부로 명칭했다. 과거에는 1학년 때 공통 과정을 배우고 2학년부턴 전공을 배우기도 했지만 지금은 큰 차이가 없다. 서울대는 기계공학과, 기계설계학과, 항공우주공학부가 통합되어 1995년 기계항공공학부로 바뀌어 유지되다가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해 현재는 기계공학전공, 우주항공공학전공으로 이름이 바뀌었다. 학과 또는 학부 명칭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. 유사 과목의 단일화를 통해 통합 교육을 실시, 학생들의 전공 선택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취지"라고 설명합니다. @

MORE TIP

학과나 학부 명칭이나 변화를 보고 교육과정을 막연히 추측하는 것은 위험합니다. 방 입학사정관은 "입학처 홈페이지의 전공 가이드북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. 교과 과정과 함께 학과의 로드맵이 편성돼 있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"이라고 조언합니다.

서울대 경제학부처럼 단일 학과로 보이지만 학부로 명칭되는 경우도 있는데, 이때는 연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서울대 교무과 관계자에 따르면, 경제학과와 국제경제학부가 합쳐져 경제학부로 통합됐습니다.

취재 김지영 리포터 janekim@naeil.com